



홈플러스, 재기 시동  
2000억 자금 확보  
희생절차 준비 속도  
N1

metro®

Life

“술 한잔도 취향 따라”  
주류업계, 체험 강화  
소비자 접점 넓힌다

L2



# 17조 포용금융… 서민 재기,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금융 자원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며 “KB는 손길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동반자’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취약계층 1만2433명 채무감면

KB국민은행은 올해 금융 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도울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해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KB희망금융센터’는 취약계층 고객에게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한주 KB국민은행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1.24만명 2785억 감면  
원금 최대 90%·2074명 채무 소각

새희망홀씨 금리인하·초과이자 지원  
성실상환 고객 최대 2%p 추가 인하

전국 16곳서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  
멘토링 100개사 확대·경쟁력 강화



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어 전국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했다.

KB희망금융센터는 은행권 대표 포용금융 실천 모델이다.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KB금융그룹이 자체 개발한 KB 젠(Gen)AI 기반의 여신 사후관리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직원들의 상담 역량을 높였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시효의 단순

연장보다는 적시 채무탕감·조정을 통해 차주들이 정상적인 소비·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금융비용 낮춘다… 취약계층 금리인하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등에 대한 최고금리를 기존 13.0%에서 9.5%로 3.5%포인트(p) 인하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약 3600억원, 약 5만 1000여명이 금리 부담을 경감받는다.

또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p 인하한데 이어 6월 26일부터 대출금리 7%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분을 지원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KB국민은행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II로 전환한 고객 가운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을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의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인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품은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근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KB 새희망홀씨II’를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최대 2.0%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개월마다 대출 연체 없이 상환하면 금리가 0.2%p씩 자동 감면된다.

### ◆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

KB금융은 ‘KB소상공인 응원프로젝트’를 통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은 물론 컨설팅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2016년 9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전국 단위의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 16곳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6만 4000여건의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경영 및 금융지원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업을 은행 지점 내 공간을 활용한 ‘소상공인 원스톱 컨설팅센터’도 설립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양종희 회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올해 KB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가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며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KB소상공인 멘토링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진단·경영·세무·SNS컨설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도 전국 소재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와 자영업자를 매칭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멘토링스쿨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343건에 달한다. 올해는 9기를 맞아 기존 50개사에서 100개사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기존 하반기에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연간 상시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사옥 전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세에서 열린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 마련된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교육 체험부스에서 아이들이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KB희망금융센터가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KB금융그룹

## 메트로 한줄뉴스



▲메시 올린 스페인 ‘질식 수비’… 역대 최소 실점으로 우승

▲‘3연패’ 한화, 악재까지 만났다… 강백호,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

/사진 뉴스스

▲‘골든볼’ 주인공은 스페인 로드리… 득점왕은 음바페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 노리는 이민성호, 23일 조 추첨

▲이정후, 2경기 만에 안타 생산 재개… 시즌 타율 0.303

▲‘에르난데스와 결별’ 한화,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영입